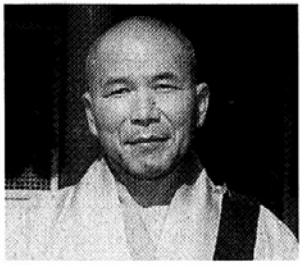


“재정공개·민주적 대중살림”

법주사 새 주지 지명스님



“전국의 분사 가운데서 가장 먼저 현대 상황에 맞는 대중살림의 모형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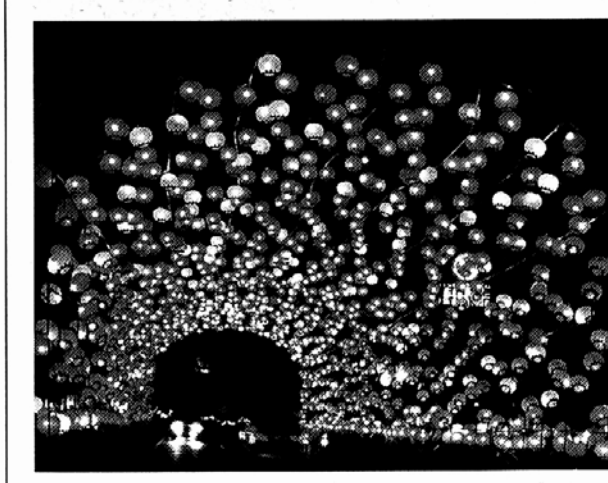
18일 조계종 제5교구본사 법주사 주지로 취임한 지명스님은 종단이 세 인물로부터 지명받는 가장 큰 이유는 사찰을 공개적으로 운영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새로 출가하는 실정으로 행정·포교·수행에 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지명스님은 “법주사를 대중살림의 원칙에 의해서 운영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하고 “어른 스님네를 잘 모시고, 전 교구의 사부대중이 화합케 하는 일, 수행하고 공부하는 스님네를 적극 받아들여 모시는 일, 법주사를 충북 도민의 귀의처가 되도록 하는 일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지명스님은 “궁극적으로 전 국민들이 십악(十惡)을 지우고 십선(十善)을 행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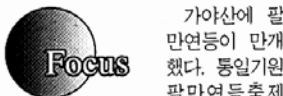
서 마침내 미륵부처님의 율화세계를 맞이하도록 발원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이날 법주사 대웅전 앞에서 열린 주지 이·취임식에는 원로회의 의장 탄성스님과 총무원장 정대스님, 중앙총회의장 법등스님, 이원종 충북도지사 등 1천여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정성운 기자

(swjung@buddhapia.com)



통일발원 팔만연등



가야산에 팔만연등이 만개했다. 통일기원 팔만연등축제 제29위원회가 팔만개의 연등을 제작, 팔만연등축제기간인 15일~ 5월 11일까지 해인사C에서 해인사 신부락까지 왕복40km의 구간에 등불을 밝혀 놓은 것. 특히 해인사C 입구에는 수천 개의 연등으로 터널을 만들어 환상적인 분위기를 연출했다. 축제 기간중에는 불교의식공연, 사찰음식체험 등의 행사가 마련된다. (0599)931-1001

합천=이윤호 기자



운제스님 1주기 추모제·부도 봉안

태고종 승정 운제당 이영무 스님의 열반 1주기 추모법회와 부도 봉안식이 16일 파주 범룡사에서 봉행됐다.

이날 법회에는 태고종 승정 금봉 스님, 총무원장 인곡 스님, 종단협 사무국장 법현 스님, 태고종 총무원장 지상 스님, 한국교수불자연합회 이준 회장, 법륜사 조달공 신도회장 등 사부대중 50여명이 참석했다.



범어사 100회 보살계 수계산림

부산 범어사(주지 성오)는 17~19일 보제루에서 제100회 금강계단 보살계 수계산림법회를 봉행했다.

전계 아사리 남곡 덕명 대화상, 갈마 아사리 벽파 동주 대화상, 교수 아사리 지천 무비대화상을 삼사로 정관 선재 종교 성오 몽산 성현 정경 스님을 칠중사로 4천 6백여 대중이 보살계를 수계했다.



범어사 100회 보살계 수계산림

동국대(총장 송석규)는 19일 서울대병원 제1회의실에서 경기도 일산에 세워지는 불교중앙병원의 의료진 확보 등을 위한 ‘동국대·서울대병원 지원협력 협약식’을 가졌다. 이 협약에 따라 일산병원설립·운영에 필요한 자문과 기술 지원을 받는 것을 비롯 전공의 선발 및 수련 등을 지원 받게 된다.



동국대-서울대병원 협력 협약식

동국대(총장 송석규)는 19일 서울대병원 제1회의실에서 경기도 일산에 세워지는 불교중앙병원의 의료진 확보 등을 위한 ‘동국대·서울대병원 지원협력 협약식’을 가졌다. 이 협약에 따라 일산병원설립·운영에 필요한 자문과 기술 지원을 받는 것을 비롯 전공의 선발 및 수련 등을 지원 받게 된다.



파라미타 대구지부 전통 한마당

파라미타 청소년협회 대구지부(지부장 성덕스님)는 16일 능인고등학교에서 부처님오신날 맞이 청소년전통한마당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동화사주지 성덕스님 손기완 대구교사 불자회장, 김주본 개인택시불교정법회장 파라미타 19개 분회 소속 청소년 등 사부대중 4백여 명이 참석했다.

“어르신 다양한 욕구 충족”

일산노인복지관 초대관장 능인스님



다하겠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이 교양 시로부터 수탁해 20일 개관한 일산노인종합복지관의 초대 능인 스님은 이와 같이 취임소감을 밝혔다.

스님은 복지관이 어르신들에게 가정과 같이 포근한 느낌을 주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래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다른 노인복지

관과 달리 중산층이 많이 사는 지역적 특성을 감안, 차별적인 프로그램을 준비중에 있다고 밝혔다.

“노인복지관이면 어디나 시행하고 있는 양·한방 무료진료, 주간 보호사업, 취업알선사업, 복리후생사업 외에 문화·사회교육사업으로 호수노인대학을 설치, 컴퓨터, 레크리에이션, 가요교실 등을 개설해 어르신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싶습니다.”

지역 복지관이기에 종교색을 띠지 못하지만 ‘스님은 움직이는 법당’이라고 말하는 스님은 “지금까지 배운 이론의 토대 위에 현장 경험을 쌓아 불교복지에도 기여하고 싶다”는 희망을 밝혔다. 한영우 기자

(mwhan@buddhapia.com)

“생명 충만한 진리세계 그려요”

롯데월드서 대길상展

지형 스님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이 세상 모든 이들이 생명력과 길상이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기를 기원하는 마음에서 이번 전시를 준비했습니다.”

20여년간 길상도(吉祥圖)를 연구하며 수행의 길을 걸은 지형스님이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제5회 대길상도 작품전을 26~30일 서울 잠실 롯데월드 3층 특별 전시관에서 연다.

이번 전시에는 1백마리의 용을 10m 화폭에 담아낸 ‘대용마도’를 비롯 ‘비룡통천’ ‘대가라왕’ 등 우주적 기운과 선적수행의 경지를 한껏 느낄



수 있는 그림 2백여점이 선보인다. 스님은 “길상을 상징하는 용과 말 등을 소재로 무량한 진리의 세계, 부처의 세계를 표현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스님은 이번 전시기간 중 매일 오전 11시 불교문화대강좌와 불교전통문화행사를 마련해 관람객들의 이해를 도울 예정이다. (02-3443-9871)

이은자 기자 (ejlee@buddhapia.com)



무차 경로잔치 열어

진제 해운정사 조실은 5월 5일 만불잔안법회 기념 ‘남북 평화통일 기념법회 및 시 일인 무차 경로잔치’를 연다.



보현불교대학서 법문

우룡 울산 학생선원 조실은 5월 4일 오후 7시 대전 보현불교대학에서 부처님 오신날을 기념해 법문한다.



‘붓다의 생애’ 주제 법문

자광 김용사 주지 스님은 5월 9일 오후 7시 대전 보현불교대학에서 ‘붓다의 생애’를 주제로 법문한다.



남북통일기원 시민대법회

성덕 대구 동화사 주지는 5월 2일 오후 6시 30분 대구 프린스호텔 별관 2층에서 남북통일기원 대구시민대법회를 봉행한다.



보조국사 종재·가사불사

현봉 송광사 주지는 29일부터 5월 1일까지 3일간 제79회 보조국사 종재와 보살계 및 가사불사 회향식을 거행한다. 29일 오후 7시 보살계 입제식, 30일 오전 10시 가사불사 회향식, 5월 1일 오전 9시 법성도 요집의식 및 보조국사 종재



등을 봉행한다. (0661)755-0107

초파일 감사기도 입제

송암 안성 도피안사 주지는 5월 4일 오전 10시 30분 도피안사에서 초파일 감사기도를 입제한다. (0334) 676-8700

홍릉사 창건 기공식

우항 선학원 황릉사 주지는 24일 전남 순천시 별방면 용두산에서 홍릉사 창건 기공식 및 잠안 대법회를 봉행했다. (0661)742-3971



보문사 49일간 용왕대제

인행 강화도 보문사 주지는 28일부터 6월 15일까지 49일간 용왕대제를 개최한다. 28일 오전 10시 입제식에는 수덕사 회주 설정 스님이 법문한다. (032)933-8271



중앙승가대 동문회장 뽑혀

원형 조계종 중앙총회의원(무주 안국사 주지)은 14일 중앙승가대 총동문회 제20차 총회에서 제6대 동문회장에 선출됐다.



제1회 현대조각 심포지엄

박천수 목아박물관장(제1회 산청 국제 현대조각 심포지엄 조직위원장)은 21일~5월 5일 경남 산청군 시천면 중산리 중산관광단지에서 제1회 산청 국제 현대조각 심포지엄을 연다.



한평생 사랑 실천 환경직 목사 별세



한국 개신교 원로 환경직 목사가 19일 98세를 일기로 타계했다.

1902년 경남 평원에서 태어난 한 목사는 평양 숭실대와 미국 엠포리아대, 프린스턴대 신학대학원에서 신학을 공부했으며, 1933년 신의주 제2교회 목사를 시작으로 평생 목회활동에 전념했다.

한 목사는 1945년부터 72년까지 영락교회 담임을 지냈고, 기독교선명회 이사장, 기독교선교 100주년 기념사업협의회 총재,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회장 등을 두루 역임하며 복음화 운동에 진력했다.

한국교회 산증인이었던 그는 또 영락 경로원, 다비다 모자원 등을 설립하고 홀트양자회 이사장을 지냈다. 또 대광학원, 보성학원 이사장과 영락중고교, 영락여자신학교 설립자, 숭실대 학장 및 이사장을 거치는 등 교육사업에도 남다른 관심을 기울였다.

한 목사는 90년 사랑의 쌀나누기 운동을 펼치는 등 나눔 운동을 실천한 공로를 인정받아 92년 템플턴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김복동 의원 별세



자민련 불자회 고문 김복동 의원이 19일 오전 9시 40분 서울 삼성병원에서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67세. 김 의원은

의 장례는 21일 국회장으로 치러졌고 대전 현충원에 안장됐다.

김복동 의원은 육사 11기로 아전군 작전처장, 사단장, 육사교장을 거쳐 81년 육군 중장으로 예편한 뒤 14대 국회에 민자당원으로 당선돼 정계에 입문했다.

불기2544년 5월2일

부산불교회관 그佛法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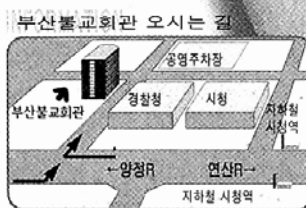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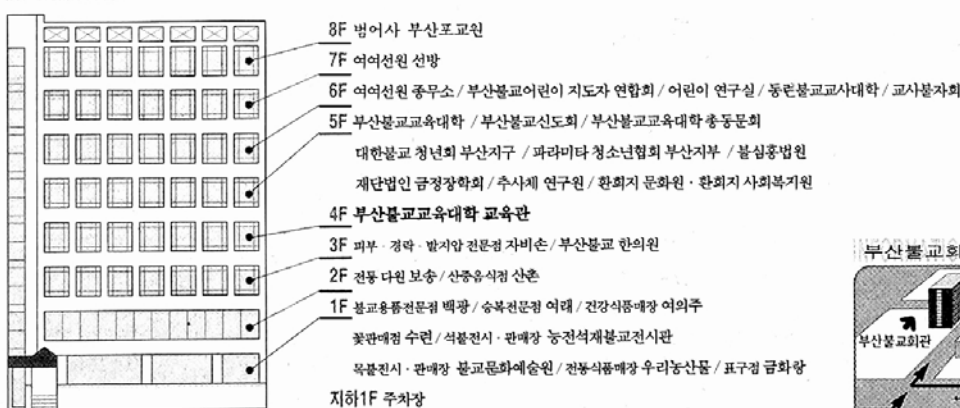
바른 지혜를 꿈꾸며 태어났습니다. 도심포교의 제일 도량으로 정법을 구현코자 첫 발을 내딛습니다.

미래 불교를 위해 태어났습니다. 불법홍포의 초석을 다지고자 바른 의지를 모았습니다.

불법의 세상을 키워 갑니다. 수행의 여정을 모두 담았습니다.

부산불교회관으로 오십시오. ‘부산불교의 요람’이 이곳에 있습니다.

부산불교회관층별 안내



일시 / 불기 2544년 5월 2일(화)

점안식 오전 8시 30분

개관식 오전 10시 40분

장소 / 시청 옆 부산불교회관

佛法的 세계로, 布教的 세계로
부산불교회관
BUSAN BUDDHIST CENTER
부산광역시 진구 양정2동 157-1
문의 전화: (051) 853-5486 · 5487